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병화



광주시는 분야별로 어느 정도 도시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필자가 해외 투자설명회에서 광주시의 투자환경을 소개할 때마다 고심했던 문제다.

지식산업 육성에 비교우위

첫째, 우리는 인적자원 분야에서 몇 가지 유리한 지표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광주시는 인구 1만명 당 대졸 이상의 학력소유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전 등의 산업 분야 집중도 및 집적도가 높아 지역 내에 수직적 분업체계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광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 나노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개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광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

셋째, 공간 인프라를 설명할 때는 국제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공항 및 항구 등을 통한 해외 연결성이 좋고 또 우리 지역이 지리적으로 중국 연안도시 및 일본열도를 포함하는 동북아경제권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외국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마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적 투자인지를 찾아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유리한 사항을 위주로 한 설명보다도 비용과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어느 지역이 최적지인지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경쟁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첨단산업 투자기업들이 초기투자를 절약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단지에서 강력한 기업지원형 R&D 인프라를 갖추어 제품개발, 시험인증, 실험생산 등을 공용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이러한 소요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전문적 연구에 의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물리적 투자환경 개선 못지않게 오히려 예산이 들지 않는 지역문화의 개방성이나 지역주민의 개방의식이 투자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 들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비롯 문화적·사회적 이질성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우호적 분위기 조성

다음은 기업우호적인 사회분위기의 조성이다. 우리는 과거 잘못된 기업문화유산 때문에 기업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절차를 요구하여 왔다.

아울러 지역사회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관용의 정신을 함양하여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혹은 "지나치게 까다롭다" 등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많을 경우 투자자들은 우리 지역을 기피할 것이다.

시설

홍행 '실패'로 끝난 범여권후보 호남 경선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범여권의 호남 지역 경선 결과, 이번은 없었다. 지난달 29일 통합민주당은 광주·전남 경선을, 민주당은 전북 경선을 치렀지만 지난 2002년 '노풍(盧鳳·노무현 바람)'과 같은 열풍은 불지 않았다.

통합민주당 대선후보들은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광주의 선택이 대선후보 경선을 사실상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사활을 걸었다. 정동영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기업을 토해지 마라며 박진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산간 오지는 물론 대도시 인근 농경지에 이르기까지 농작물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는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듯하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2002년 7억1천만원 정도였던 피해액이 지난해 20억 원으로 늘었다. 대도시인 광주도 올 들어 1천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였다. 이인제 후보가 지난 20일 인천 경선에 이어 전북에서도 선두로 오르면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투표율은 인천의 9.1%에도 못미친 7.8%였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통합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조순형 후보는 동원·금천선거구로 인해 경선이 왜곡되고 있다며 합동연설회와 TV토론에 불참하는 등 선거운동 중단 선언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울타리 설치에 m당 1만~2만여원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농가에 대해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야생동물의 피해로 고통받는 농민의 부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피해 농가를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할 때 야생동물 포획·퇴치 방안은 물론 피해 농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최인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만장일치로 평결을 하되(배심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고(참심제)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도의하되(참심제)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며(배심제) ▲배심원의 평결을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배심제의 수정) 등이다.

기고

임동환



'제2의 광주시민'인 버마인들이 무자비한 탄압과 무방비의 고립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로 신음해온 버마인들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절규와 외침이 금남로를 넘어 전세계의 양심을 향하여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

고 전한다. 힘든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주 노동자나 불법 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광주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조국 버마 민주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 사법참여시대 개막

대륙의 일부 국가들은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참심제(參審制)는 일반 국민인 2~3명의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재판방식이다.

위 헌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하여(법관이 아닌) '국민에 의한 재판'을 표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프리 버마'의 열망은 총칼로 막을 수 없다

투쟁은 결코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바로 지난 시대 광주시민들과 뜻있는 한국인의 투쟁과 일치한다. 대검과 총으로 무장한 군사정부의 강경대응에 맞서 그들의 민주화 투쟁은 80년 5월 광주 아픔과 슬픔의 연장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버마 군사정부는 이제라도 총칼로 막을 수 없는 자국 시민들의 함성에 귀를 기울여 한다. 경제적 이익 관계 때문에 버마 사태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세계 각국은 하루 빨리 버마 군사정부를 압박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無等鼓

스탈린의 전체주의 공포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동물농장'과 '1984년'의 작가인 조지 오웰(1903~1950). 그는 자신의 작품 성향과 달리 젊은 시절 이질적 이력을 쌓은 인물이다.

인도 태생 영국인인 그는 당시 인도에 속했던 미얀마(버마의 현재 이름)에서 식민지 경찰을 한 전력의 소유자다.

부정권의 '버마식 사회주의', 이 독단에 빠진 이데올로기와 부패 구조는 아시아 최후의 미얀마를 지금의 최빈국으로 전락시켰다.

제국주의의 모순을 꼬집었다. 미얀마는 1945년 2차대전 직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60년이 넘도록 독재와 저개발의 미망에 빠져 있다.

문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속칭 군부정권의 '버마식 사회주의'가, 이 독단에 빠진 이데올로기와 부패 구조는 아시아 최후의 미얀마를 지금의 최빈국으로 전락시켰다.

지난달 18일 이후 미얀마의 최대도시 양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미얀마는 유희 살육의 공포사회, 그 자체로 변했다.

농민-상인 인삼 매매거래서 작성, 절도 예방해야

인삼농사를 하는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들어 다 키운 5년근 인삼을 도난당할 뻔했다. 다행히 밤에 밖에 나갔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마땅히 대책이 없다. 값비싼 인삼 등을 대량 판매하는 상인들은 의무적으로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하면 어떨까. 또 그 인삼을 중간 상인에게 판매한 농민의 이름도 기록하도록 하자.

광주공원, 노인 전용 봉사자 공급센터로 활용을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외워야 한다. 사회활동에 참여를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찾는 광주공원을 교육 터미널 같은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